



# 운전면허 취득제도 강화 필요성

기승도 수석연구원

## 요약

■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FY2009 이후 급격히 높아졌는데, 운전경력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사고 발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보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운전 요령 및 태도를 배우게 되므로 운전면허취득제도를 보다 난이도 높게 개선하는 한편, 영국과 같은 체험식 운전면허제도 도입 검토 등 초보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및 손해보험 회사 영업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높아지는 추세인데, 특히 FY2009 및 FY2010에는 사고 발생률이 과거보다 크게 상승하여 각각 26.1%, 27.8%에 달함.

〈표 1〉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추이

(단위: %, 원)

구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사고발생률	23.0	23.3	26.1	27.8
1대당 손해액	412,389	411,721	441,341	667,514

주: 증권별 사고발생률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 적자는 FY2009에 9,400억 원을 기록하였고, FY2010에도 1조 4,000억 원(추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막대한 영업수지 적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여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소비자와 손해보험 회사)간의 갈등 원인으로 대두됨.

〈표 2〉 연도별 영업수지 및 손해율

(단위: 억 원, %)

구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추정)
영업수지	-10,065	-5,352	-2,148	-9,365	-14,000
손해율	79.0	73.0	69.7	75.9	-

주: FY2010은 추정값임.  
자료: 보험업계 자료.

■ 이처럼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 등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임.

-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운전경력 1년 미만인 운전자의 사고위험도가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운전자 보다 15~38%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운전경력별 상대적 사고위험도

구분	FY2009	FY2010(추정)
1년 미만	1.38	1.15
1년 이상 2년 미만	1.10	1.09
2년 이상 3년 미만	1.08	1.05
3년 이상	1.00	1.00

주: 개인용자동차보험 기준임.  
자료: 보험개발원(2011), 참조순보험료율 신고서.

- 과거 5년간 경찰청의 운전면허취득경과년수별/연도별 교통사고발생률<sup>1)</sup>을 보면, 운전면허 취득경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의 사고발생률은 평균 2.0%이며 이는 기타 운전경력기간의 사고발생률 평균 1.7% 보다 높음.

1) 보험회사에 집계된 사고실적에는 경찰청에 신고된 사고와 신고되지 않은 사고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러므로 본 분석에 사용된 경찰청 통계실적 기준 사고발생률은 보험회사 사고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표 4〉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발생률

(단위: %)

연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2005	2.2	2.2	1.8	1.1	1.3
2006	1.9	1.9	2.4	1.2	1.6
2007	1.8	1.7	1.7	1.6	2.3
2008	2.7	1.4	1.5	1.3	2.8
2009	2.1	2.3	1.3	1.6	1.6

주: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대수와 운전면허취득 경과기간별 교통사고건수를 이용하여 사고발생률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사고발생률과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경찰청(2010), 『2010년판 교통사고통계』.

- 또한 2005년 이후 경찰청 운전면허취득경과년수별/연도별 교통사고건수를 보면, 운전면허 취득기간 ‘1년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의 사고건수 구성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운전면허 취득경과년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단위: 건, %)

연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2005	9,955 (19.7)	7,567 (15.0)	11,216 (22.2)	11,019 (21.8)	10,826 (21.4)
2006	9,720 (18.8)	8,937 (17.3)	8,246 (16.0)	7,820 (15.1)	16,973 (32.8)
2007	9,368 (20.3)	8,455 (18.4)	7,973 (17.3)	5,729 (12.4)	14,544 (31.6)
2008	9,935 (24.3)	7,662 (18.8)	7,417 (18.2)	6,215 (15.2)	9,596 (23.5)
2009	11,332 (26.7)	8,536 (20.1)	7,161 (16.9)	7,892 (18.6)	7,561 (17.8)

주: ( )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경찰청(2010), 『2010년판 교통사고통계』.

-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의 높은 사고 발생률은 주요국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체험식 운전면허제도(Pass Plus) 도입 등,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sup>2)</sup>

- Pass Plus의 교육내용은 도시에서의 운전, 모든 기후에서의 운전, 시골에서의 운전, 저녁 시간의 운전, 이중 차도에서의 운전,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등 총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2) 기승도(2009),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보험연구원, p. 126.

- Pass Plus는 초보 운전자에게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과정에 참석할 경우 시험은 없으나, 모든 모듈에서 “달성(achieved)” 또는 “표준초과(exceeded standard)”의 평가를 받아야 함.
  - 동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초보 운전자 50명 중 1명이 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최근에는 6명 중 1명이 이수하고 있음.
  - Pass Plus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초보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영국의 체험식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 취득이 용이해지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취득 과정은 운전자가 자동차운전 습관 및 태도를 처음으로 배우는 단계이므로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허술할수록 초보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운전면허취득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체험식 운전면허제도 도입 등 운전자가 건전한 운전습관을 배울 수 있는 운전면허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자동차 사고율이 감소할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소비자 및 손해보험회사)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kiri](#)